

+하느님께 영광

안녕하십니까? 주임신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잘 지내시는지요.

상황이 좀 회복된다 싶어서 미루어 오거나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재개할까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급작스럽게 상황이 어려워져

모든 것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일학교 미사는 보류하였으며, 예비자 교리반과

첫영성체 교리는 8월말까지 접수를 받지만 교리반 운영에 대하여서는 추이를

보아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진 관계로 미사외에는 모든 모임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3단계 조치가 내려진다면 아마도 미사까지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사참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 해서
알려드리면, 성당에서 주일미사가 거행되는 한 일반적인 미사참례의무에 관한
관면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제한적인 관면 즉 노약자들에 한하여 관면이 허용
됩니다. 노약자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노인들은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극복해 나가야 겠습니다.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 협조, 노력해 주십시오.

성당에서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의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사참례시에는 가급적 가족들이 함께 하여주시고, 부득이

미사참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평화방송미사에 함께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정부당국은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본당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단계 조치가 해제 될 때 까지 미사 외에는 모든 모임을

중단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안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알릴 사항이 있으면 구역반장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음동 성당 주임신부 구본영 바오로